

SM C&C LETTER

2022.08 | No.154

이/번/달 줄/거/리

광고 사업 | 바리스타룰스 그란데와 함께 오늘 하루도 원두풀하게~

STUDIO | “만.반.잘.부” SM C&C 스튜디오 새싹이들, 아무튼 첫 출근 했습니다!

매니지먼트 | 우리들의 아는 형님 강호동, 미친 존재감과 선한 영향력으로 오늘도 열일중!

여행 사업 | “우리 회사 직원이 해외출장을 갔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죠?”

SM PICK | [헤이폴 선정 이달의 앱] 중고거래 앱? No! 이제는 국내 최대 지역 생활 서비스 앱

SM INSIDE | 진짜 대단한 직장인 모서봄.zip (feat. AI, 폴댄스, 도예, 드론, 악기)

ADVERTI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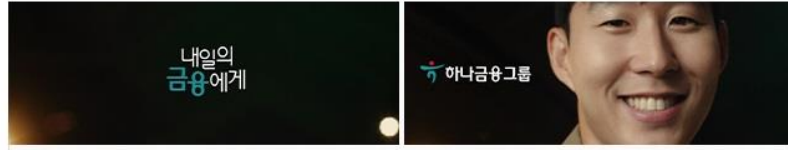


바리스타룰스 그란데와 함께 오늘 하루도 원두풀하게~

출근해서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혈중 카페인 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커피를 수혈하는 직장인을 위해 커피 시장에 '대용량 커피'가 등장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1등 컵커피 바리스타룰스 그란데도 대용량 커피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본부장으로 승진해 '라떼력'이 더 상승한 배우 전석호의 리얼 오피스스토리와 '원두full'한 열연을 이번 캠페인에서 확인해보세요!

[+ 자세히 보기](#)

《 SM On Air 》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그룹PR'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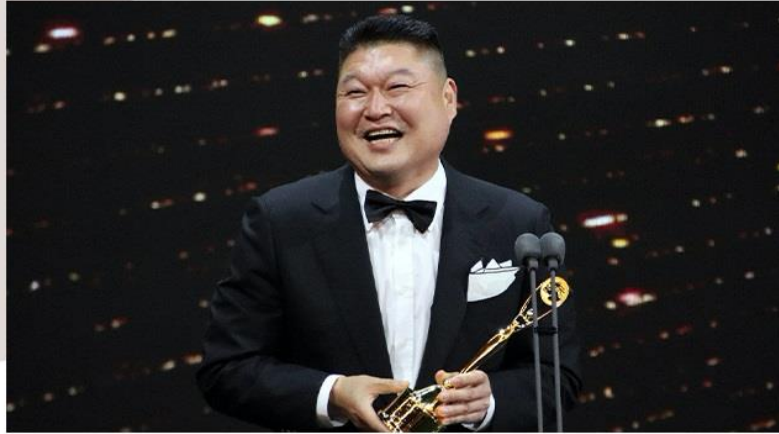
STUDIO

“만.반.잘.부” SM C&C 스튜디오 새싹이들, 아무튼 첫 출근했습니다!

올해 7월, 3개월의 인턴 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갓 입사한 6명의 신입 PD들이 광야에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그들의 첫 출근, 어땠을까요? PD 준비과정부터 앞으로의 다짐까지 프리뷰로 맞본 '썸' 광야 체험기를 들어봤습니다. 첫 출근날부터 워크샵으로 시작한 직장생활이라 더 특별했다고 하는데요. STUDIO Unit PD 꿈나무들에게 전하는 면접 꿀팁도 있으니 주목해 주세요!

[+ 자세히 보기](#)

MANAGEMENT



우리들의 아는 형님 강호동, 미친 존재감과 선한 영향력으로 오늘도 열일 중!

콘텐츠 범람의 시대 속 능력을 인정 받은 자가 있으니! 바로 국민 MC 강호동입니다. 친근한 매력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글로벌 시청자부터 MZ세대까지 사로잡고 있는데요. 최근 故 송해 선생님의 뜻을 이어 받은 행보로 다시 한번 동료 연예인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브라운관과 OTT까지 종횡무진하는 강호동만의 영업 비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호동이~오래오래 사랑해 주이소!"

[+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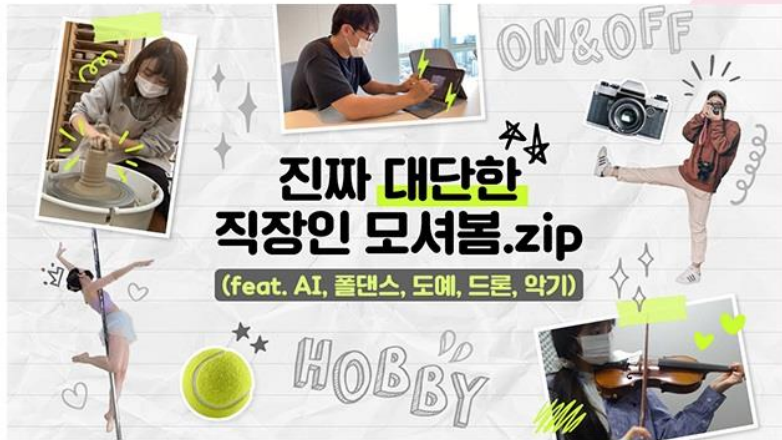


TRAVEL

“우리 회사 직원이 해외출장을 갔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죠?”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해외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외출장자들이 개인 신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소매치기를 당한 경우,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 해외출장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해외출장 비상상황 관련 실제 문의사항을 Q&A로 알아봤습니다.

[+ 자세히 보기](#)



진짜 대단한 직장인 모셔봄.zip (feat. AI, 폴댄스, 도예, 드론, 악기)

여러분은 퇴근 후 어떤 저녁을 보내시나요? 오늘 하루 사용할 에너지를 거의 다 소진한 퇴근 후 무언가를 하는 대단한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워라밸을 잘 유지하며 퇴근 후 알뜰하게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인데요. 업무에도 한 스푼 도움이 되는 썬능력자 구성원들의 취미생활을 만나봅니다. AI로 그림 그리는 직장인부터 도예를 하는 직장인까지 이들의 온앤'오프'를 들여다봤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2년 2분기 우수사원을 소개합니다

신지원(CX3팀) 김무진(독립문) 김대근(CI3팀) 구민정(CP2팀) 오관섭(MC매니지먼트1팀)
장지규(연기자매니지먼트1팀) 이나연(콘텐츠기획제작4팀) 조은지(콘텐츠제작지원팀)
김한규(프로젝트매니지먼트팀) 이은정(경영기획팀) 박예민(항공운영2팀)

[+ 자세히 보기](#)



글. 광고사업 Unit. CP2 팀

‘아 커피 수혈해야겠다’

아침에 출근해서 한 잔, 점심 먹고 식후땀으로 한 잔.
현대인들이 즐린 눈을 애타게 비비며 찾는 그것, 바로 **커피**입니다.

프랜차이즈부터 개인카페까지
골목 곳곳마다 카페가 빼곡히 들어섰을 정도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커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친구인데요.

특히 올 여름은 무더위와 장마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이스 커피를 찾고 있어 대용량 커피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바리스타룰스 그란데**로 ‘더 많이’ 마셔라!”

혈중 카페인 농도를 채우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커피 수혈하는 직장인들로
현재 커피 시장은 '대용량 커피'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고급 원두를 사용해 이미 ‘카페 부럽지 않은 편의점 커피’로 알려진
1등 컵커피 바리스타룰스도 대용량 커피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더위와 일상에 지친 소비자들이 바리스타룰스를 조금 더 오랫동안 즐기며 피곤함을 날릴 수 있도록 매일
유업은 ‘바리스타룰스 그란데’를 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제품을 찾는 2030 소비 트렌드에 맞춰 무라
벨 패키지까지 선보여 주목받았죠.

저희 팀은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도전을 거듭하는 **바리스타룰스 그란데**를 각인 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받았
습니다.

“

전쟁 같은 대용량 커피 시장에서
바리스타룰스 그란데의 등장이라...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을 꼽으라면 직장인이 단연코 1 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바리스타룰스 그란데 캠페인의 메인 타겟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용량 커피 시장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바리스타룰스 그란데’를 차별화 되게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
한 고민은 더욱 컸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지난해 캠페인이었습니다. 당시 공감
가는 스토리로 소비자의 마음을 저격하며 높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이번 캠페인 역시 바쁜 일상 중에도 맛
있는 커피는 포기할 수 없는 직장인에게 ‘바리스타룰스 그란데’가 답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유쾌하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

“좋은 건 한 번 더! 달콤쌉쌀 오피스 세계관의 확장”



2021 년 캠페인 당시, 대용량 커피가 필요한 상황에서 ‘바리스타룰스 그란데’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드라마타이즈 광고로 제작했는데요. 드라마타이즈 광고란 브랜드 메시지를 단편 영화나 드라마처럼 하나의 스토리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일상 이야기에 거부감 없이 메시지를 녹여낼 수 있다는 장점, 광고인 듯 광고 아닌 광고 같은 매력으로 긴 호흡에도 불구하고 한 번 보면 뒷이야기가 궁금해 계속 보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은 광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룰스 그란데는 소비자의 공감과 웃음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도 직장 생활 배경의 드라마타이즈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해 광고의 연장선에서 배우 전석호를 비롯한 출연진들을 그대로 섭외했습니다. 2년 연속 캐스팅된 배우 전석호는 올해에도 현실 직장인 연기를 완벽하게 선보였죠. **달라진 점은 본부장으로 승진해 ‘라떼력’이 더 커졌다는 정도랄까요!**



새로운 커피 소비층으로 주목받았던 3040 중장년층에 집중해 부장님 개그를 컨셉으로 했던 지난해와 달리 타깃을 **‘전체 직장인’**으로 더 넓혀 공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고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직급이 팀장, 부장에 그치지 않고 본부장부터 사원까지 다양해졌는데요.** 여러 직급을 등장시켜 **바리스타룰스 그란데의 세계관을 확장한 것이죠.** 덕분에 스토리도 확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상황별 맞춤 아재 개그를 나열하는 단편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회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기다리는 본부장님을 막는 스토리를 그려냈는데요. 회의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본부장님께 커피 한 잔 하자며 대용량 커피를 권하고, 다 마셔야 회의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은 **직장인들의 폭풍 공감**을 얻어 '너무 공감 가서 웃프다', '커피로라도 시간을 끌 수 있으면 다행', '넘나 리얼해서 스킵 불가..', '그래서 회의는 언제 시작하나요' 등과 같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 .

“원두가 원두풀하네~ 아재 개그가 곳곳에”



직급은 달라졌지만 아재 개그는 여전했습니다. 속 타는 부하직원과 달리 느긋한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본부장님이 썰렁한 농담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주변 반응에 굴하지 않고 계속 아재 개그를 하는 모습은 현실 본부장들과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해 시청자들의 공감과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원더풀’과 발음이 유사한 ‘원두 full(가득한)’이라는 말장난을 카피로 활용했는데요. 커피 향에 심취해 환상의 세계를 여행하는 배우 전석호가 마치 세뇌시키듯 바리스타를 그란데의 장점과 ‘원두풀’을 능청스럽게 반복합니다. 우리 일상에 어느 순간 커피가 스며든 것처럼 광고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고 등급 원두를 가득 채워 만든 바리스타를 원더풀하게 즐기자’는 메시지가 각인되도록 자연스럽게 녹여냈죠.

전체 직장인으로 넓어진 타깃을 공략하기 위해 온라인 밈(Meme, 온라인 유행 콘텐츠)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MZ 세대를 넘어 이제는 전 세대가 알 정도로 화제가 된 ‘누구인가 누가 이런 원두풀한 커피를 만들었어’, ‘화려한 최고등급 원두가 나를 감싸네’, ‘그란데말입니다’ 등의 대사를 사용해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리얼 오피스 스토리로

매년 직장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리스타를스 그란데.**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사장님까지 고속 승진?! 은퇴를 앞두고 카페 준비?!

아니면 아예 새로운 캐릭터 등장?!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직업이 됐든,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든, 어떤 스토리가 됐든

여러분은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나도 저랬지!’ 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직장인 공감 200% 바리스타를스 그란데의 세계관,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야! 너두 리틀스엠이 될 수 있어!

정리. PR팀 김서연

올해 초 ‘**금(金)턴 시대의 인생 지침서**’라고 불리는 책 한권이 출간됐습니다. ‘**인턴 - 그저 그런 인턴으로 끝나지 않게**’라는 책인데요. 인턴 기회가 금(金)만큼 귀해진 이 시대, 인턴의 눈높이에서 도움이 될 팁과 인턴 업무 수행 사례를 함께 전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1일, 책 제목처럼 ‘그저 그런 인턴으로 끝나지’ 않고 **정규직이 되어 사원증을 당당히 목에 건 6명의 신입 PD들이 광야에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의 인턴 기간을 마치고 7월 11일 정규직으로 갓 입사한 6명의 신입 PD들! 그들의 일주일은 어땠을까요? 첫 출근날부터 워크샵으로 시작한 직장생활이라 더 특별했다고 하는데요. PD 준비과정부터 출근 후 일주일 동안 프리뷰로 맛본 **‘찐’ 직장생활 체험기**를 들어봤습니다. **SM C&C STUDIO Unit PD 꿈나무들에게 전하는 면접 꿀팁**도 있으니 이들의 후배가 되고 싶은 리틀스엠이들은 주목해주세요!



[STUDIO Unit 신규 입사자를 소개합니다]



콘텐츠기획제작1팀	콘텐츠기획제작2팀	콘텐츠기획제작4팀
임해은	양서운, 정은지	강주양, 김재욱, 정윤주
브랜드 콘텐츠 제작하고 있습니다.	8월 4일 첫방송 된 <아이린의 워크 앤 홀리데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Q. 취업을 준비하며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오래 고민한 항목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자기소개서에서 공유하고 싶은 한 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은지, 주양_ 자기소개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을 쓸 지에 대한 고민 자체를 오래 했어요. 항목을 정하는 것부터 어려웠죠.

재욱_ 언론사 현장실습 인턴, 지역 기사 기고 프로젝트, 영상 서포터즈 활동 등 현재까지 해온 관련 활동을 3 가지 소개했어요. 대학교 강의에서 진행한 **교내 PR 프로젝트, 영상 제작 프로젝트, 영상 공모전** 등 이외의 활동은 참고가 되도록 포트폴리오로 정리했는데 이 과정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서윤_ 대학생 때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졸업 영화를 찍으며 팀워크에 대해 느꼈던 것을 풀어 쓴 항목 중 한 줄이 기억나요. **“콘텐츠 제작은 개개인의 독주가 아닌 집단과 소속인원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때로 희생도 필요한 것임을 체감했다. 팀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두가 리더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썼는데요. 막내지만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배우며 팀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요.

Q. PD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윤주_ **스펙보다도 마인드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프로그램을 볼 때 스태프 스크롤을 챙겨봐요.** SMC&C에서 제작하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들을 즐겨보며 스태프 스크롤 부분이 나올 때 내 이름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어요. 아직도 스태프 스크롤에 제 이름이 올라간 걸 볼 때면 설레요. (웃음)

서윤_ **방송국 유튜브 팀에서 6 개월 동안 조연출을 했던 경험**이요. 이끌어 줄 선배가 없다는 것이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때 머리를 싸매고 직접 부딪히며 배우고 경험한 것이 큰 자산이 됐어요.

Q.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있나요?

서윤_ 인턴 기간 동안 제작에 참여했던 웹예능 프로그램이 잘 안된 것 같은 이유가 첫 질문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팩폭에 조금 상처도 받았는데요. (웃음) **고민 후 당시 저희 채널의 주 시청자 연령층과 프로그램 메인 MC의 성향이 맞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다 저 자신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만 준비했기에 바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오히려 면접 후에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해보게 됐습니다.

주양_ **재미있게 본 예능 프로그램과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답변해보라고 하신 질문**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말했습니다. 편하게 볼 수 있어서, 그런 와중에 재미도 잡은 프로그램이라서, 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유를 꼽았어요.

은지_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활동 중 예능 프로그램 제작과 가장 가까웠던 경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쭙 보셨어요. **방송국 재직 경험과 연결**하긴 했는데 다른 질문에 비해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고 얼버무렸어요. 답변을 하고 나서 ‘아, 떨어졌다’ 하고 생각한 질문이어서 기억에 남아요. (웃음)

Q. 면접을 잘 보는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재욱_ **콘텐츠 기획, 제작을 통해 피드백을 얻어본 경험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여도는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SM C&C’에서 꼭 PD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차별점에 대해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 같아요.**

은지_ **SM C&C STUDIO가 제작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관련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제 경우에는 프로그램 모니터링 후 SM C&C STUDIO에 대한 애정과 입사에 대한 간절함이 더 상승했어요. 면접 때 이를 어필할 수 있는 초석이 됐던 것 같아요.

해은_ “그래도 내가 준비한 것은 다했다!”라는 마음으로 면접장을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간 답변을 차분히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윤주, 강주양, 정은지, 양서윤, 김재욱, 임해은. 출처=김재욱님

Q. 첫 출근 전 날, 나는 무슨 생각을 했나

은지_ 첫 출근부터 1 박 2 일 워크샵이라니...

윤주_ 처음 가보는 워크샵이라 떨렸지만 3개월의 인턴 과정을 거친 후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날 생각에 기대가 많**이 됐어요.

해은_ 제가 신입사원 대표로 첫 출근 브이로그를 촬영했거든요. 카메라 뒤에만 있다가 앞으로 나오려니 걱정이 많았죠. **‘과연 브이로그를 잘 찍을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웃음) MBC ‘아무튼 출근!’도 찾아보고 브이로그 소재로 쓸 수 있는 ‘What's in my bag’, 다이어리 공개 등 인턴 생활을 적은 다이어리 등 여러 콘텐츠를 생각했어요.

Q. 출근 N 일차, 가장 어렵고 헛갈렸던 일은?

서윤_ 예고편 편집이 가장 어려워요. 이렇게 긴 분량의 촬영본을 프리뷰 하는 것이 처음이고 아직 본편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양_ 촬영본 싱크 정리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손에 익지 않아서 헛갈립니다.

재욱_ 외부업체에 전화 문의할 일이 많았는데요. 실수할까봐 말할 내용을 미리 연습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일정 에 변동이 생기거나 촬영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직은 어렵습니다.

Q. 직장인들 명언이 많은데 그 중 가장 공감가는 말을 하나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은지_ 잘 한 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못 한 건 누구도 잊지 않는다.

서윤_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재욱_ 한 건 없는데 피곤하다. (인스타그램 '망그러진 만화' 中 <신입사원>편)

Q. 사수들에게 어떤 후배가 되고 싶나요?

재욱_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배우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내는 후배로 보이고 싶어요.

서윤_ '어떤 프로그램에도 이 친구와 함께 한다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 후배가 되고 싶어요.

윤주_ 사수의 마음을 사수하는 후배요!

Q. 1년 뒤 나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해은_ 편집하는 손은 좀 빨라졌니? 1년 전 너의 손가락은 꽤나 느렸단다. 시간이 흐른 만큼 PD 라는 직업이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 중이겠지? 이 질문에 끄덕일 수 있기를. **일에 대한 열정과 회사에 잘 녹아 든 편안함이 함께하기를 바라.**

윤주_ **팀의 황금 막내**가 되었니?

서윤_ **잘 버티고 있구나.**

Q. 나에게 SM C&C 란? 다섯 글자로 표현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서윤_ **덕심부활중.** SM C&C 콘텐츠를 만들며 SM 그룹 아티스트들을 자주 접하게 되어 식었던 덕심이 다시 예열되고 있습니다. 덕업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에 힘듦보다 즐거움을 더 크게 느끼는 중입니다.

재욱_ **빨간마라탕.** 처음에는 알싸해서 낫설지만 먹다 보면 중독되는 마라탕과 같은 매력을 지닌 일을 하는 곳입니다.

주양_ **미로같은곳.** 아직은 어렵지만 재미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주_ **넥스트레벨.** SM C&C 에서 한 단계씩 성장하며 넥스트레벨을 향해 가보자고~!



윤주님의 말처럼 **Next Level**을 향해 갈 6명의 신규 PD들의 당찬 인터뷰, 잘 보셨나요?

스텝 스크롤에서 보게 될 **정윤주, 강주양, 정은지, 양서윤, 김재욱, 임해은** 이름 석 자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려요.



글. 매니지먼트 Unit 언론홍보팀 채지현

시청자들에게 **건강한 웃음과 끝없는 도전**을 보여주고 있는 강호동의 변주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신선한 포맷의 콘텐츠와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약하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 MC 강호동의 행보를 보고 있다면 **‘신이 내린 예능 감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절로 무릎을 탁 치게 되죠.

게다가 **훈훈한 ‘빛호동’의 소신과** **특심은 방송계 곳곳에 전파돼 ‘강호동 클라쓰’라고 불리며**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브라운관부터 OTT 까지 종횡무진하는 강호동만의 영업 비결을 소개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도전하는 MC**



출처= (왼쪽) tvN '대탈출' 시즌1, 시즌4 (아랫쪽) 카카오TV '머션129'

“

예능과 버라이어티에서 쪽 쌓아 온 그만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예능 트렌드를 쫓는다.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모습이 가장 큰 매력!

- 정종연 tvN '대탈출' PD, tvN '대탈출' 기자간담회 중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강호동의 룬런 비결**을 꼽으라고 한다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트렌드에 발 맞춰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N '대탈출'을 통해 방탈출 세계에 입문한 강호동은 **시즌이 거듭될수록 몰입감과 센스를 발휘하며 성장형 탈출러로 업그레이드**됐는데요. 중요한 고비마다 괴력을 발휘하는 든든한 만형의 면모를 뽐내는가 하면 타고난 눈치와 예능감으로 '방탈출 꿈나무'에서 '대탈출 에이스'로 발전했죠. **시간이 날 때마다 방탈출 카페에 다녀온 그의 노력** 덕분입니다.

“카카오톡을 안 하는 강호동이 구독자를 위한 선물 현피를 뜨다?”라는 신선한 발상에서 시작된 카카오TV '머션129'는 각 기업 CEO들과 유쾌한 한 판 대결, 그리고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 내며 **높은 조회수와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출처= tvN '올 탁구나!' 캡처

JTBC '몽쳐야 찬다'부터 SBS '골 때리는 그녀' 등 다양한 스포츠 예능이 인기를 얻으면서 예능가에서는 '스포츠'가 떠오르는 키워드가 됐는데요. **스포테이너 1 세대인 강호동**도 빠질 수 없죠. 'tvN 올 탁구나!'를 통해 탁구 전도사로 나서며 오랜만에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올 탁구나!'는 탁구를 사랑하는 스타들이 특훈과 도전을 통해 최강 탁구팀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국내 최초 본격 탁구 예능인데요. 연예계 탁구 강호로 손꼽히는 그이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수많은 경기와 훈련을 통해 실력을 키웠습니다. **명불허전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건 물론 탁구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방출하며 스마트함을 뽐냈는데요. 강호동은 말형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동생들을 이끌며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을 날리는 각본 없는 성장 드라마를 보여줬습니다.**

*스포테이너란? 스포츠(Sports)+엔터테이너(Entertainer)의 합성어로 선수 출신의 예능인을 뜻함

...

남다른 食견화 가진 자타공인 레전드 먹방러



출처= (윗줄) Olive '호동과 바다' (아랫줄) 유튜브 '채널 십오야-라끼남'

뻥할 수 있는 먹방도 강호동이 하면 다르다는 사실! 강호동은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엄청난 대식가이자 미식가의 면모를 발휘하며 **차원이 다른 食견을 선보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tvN '신서유기 5'에서 라면 브랜드를 육안으로만 맞힌 사례가 있습니다. 면발의 굵기와 냄새만으로 구별해내 예민한 미각과 후각, 남다른 눈썰미를 보여줬죠. 라물리에로 등극한 강호동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채널 십오야 '라끼남' 런칭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으로 눈과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라끼남'은 종영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받으며 강호동의 저력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호동의 食견하면 푸드 다큐멘터리 Olive '호동과 바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철 음식 앞에서 보석같은 이야기와 진실된 힐링 리액션으로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채우기도 하고, 상황에 맞는 추천 음식 페어링과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먹방 퍼포먼스로 보는 이들의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호동과 바다'는 다소 뻥할 수 있는 먹방이라는 소재를 강호동이라는 존재 하나로 다큐와 예능을 넘나드는 새로운 예능으로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

3인칭의 대명사! 호동이는 전 세계 MZ세대와 소통하고 싶어요~♥



카카오 TV 에 출연하며 **MZ 세대의 매운맛을 맛본 강호동은 네이버로 랜선 나들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MZ 세대에게 친숙한 **네이버 NOW.의 '강나와'**로 우리 곁에 돌아온 강호동은 방영과 동시에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게스트들의 거침없는 토크에 괜히 제작진의 눈치를 살피는 강호동의 모습이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며 웃음을 자아낸 것인데요.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하기도 바쁘면서도 MZ 세대 게스트들의 수위를 넘나드는 질문과 솔직한 이야기 속에서도 곳곳이 진행을 이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역시 국민 MC'라는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50만 회를 돌파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는 '강나와'는 **특급 게스트들과 강호동의 남다른 티키타카와 색다른 케미로 매회 열띤 반응을 얻으며 새로운 형식의 토크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출처= 채널S '잡동산' 캡처

연령대를 조금 더 낮춰 이번엔 글로벌 틴즈*로 이동! **천진난만한 어린이 고객의 '키심'도 저격**합니다. 다양한 직업군을 알아보는 채널S '잡동산'을 통해 강호동은 호불호 확실한 10대의 언어와 행동을 예리하게 분석해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모든 연령과 소통이 가능한 MC 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방송계 유일무이 **입지 않은 3 인칭 화법의 소유자**라는 특징을 십분 살렸습니다. “호동이는요”, “호동이가” 등 애교가 듬뿍 담긴 말투로 웃음 포인트를 형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진행으로 솔직함 순도 100% 어린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키심 저격에 성공한 강호동의 매력 덕분일까요? 예능 프로그램 '잡동산'이 증명된 지 1년 후인 지난 7월, **도서 '강호동의 잡동산' 시리즈**가 출간되었습니다. **원작 예능인 '강호동의 잡동산'에서 다룬 다양한 직업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책인데요.** 책을 본 아이들이 훗날 성장해 직업을 택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도서 발간 취지에 공감한 강호동은 출판사와 뜻을 함께 모아 적극 참여해 훈훈함까지 더했습니다.

*틴즈(TEENZ)란? 10대를 뜻하는 TEEN+Z 세대의 합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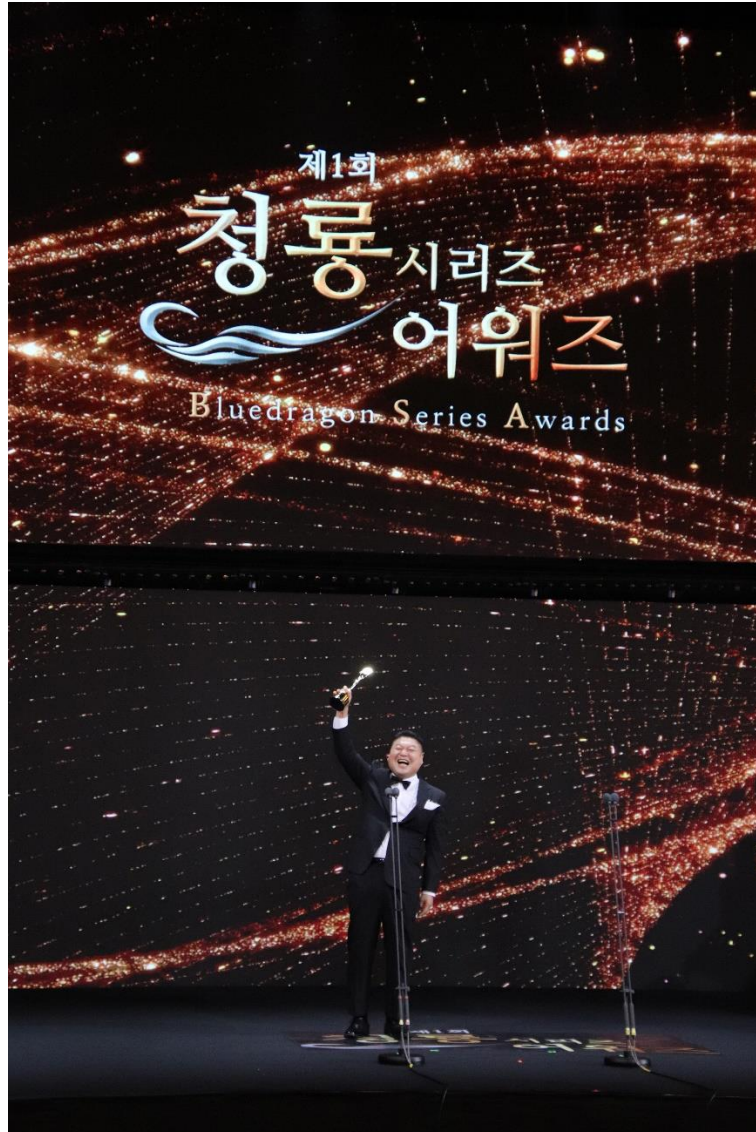
국민 MC 강호동, OTT도 완벽 적응!



출처=SM C&C

OTT 콘텐츠 범람의 시대 속 능력을 인정받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국민 MC ‘강호동’입니다. 국내 최초 오리지널 스트리밍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제 1 회 청룡시리즈어워즈’ 시상식에서 ‘남자에능인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주최 측은 ‘신서유기 스페셜 스프링캠프’, 왓차 ‘지혜를 빼앗는 도깨비’ 등에서 유쾌한 매력과 대체 불가 존재감으로 사랑받은 활약상을 인정받아 ‘남자에능인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그가 새로운 플랫폼에 꾸준히 도전하고 노력한 것들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출처=SM C&C

호탕한 매력과 친근한 진행,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활약한 강호동은 “매체와 상황에 관계없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방송인이 될 수 있게 정진하겠다”며 인상 깊은 수상소감을 전해 모두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수상의 기쁨을 함께 고생한 동료들, 스태프들과 나누며 이들 덕분에 OTT 라는 낯선 환경에 할 수 있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OTT에서 더욱 활발하게 보여줄 강호동의 활약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집니다.

...

알고 보면 남몰래 선행 활동을 이어온 그대의 이름은 ‘빛호동’



출처=JTBC ‘아는형님’

착한 일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요즘 시대엔 왼손은 물론 오른손, 양팔까지 모두 알려 선한 영향력 실천에 앞장서는 것이 트렌드! 대중들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다채로운 선행을 행하고 있는 ‘빛호동’의 뜻깊은 기부 행보 클라쓰를 소개합니다.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강호동의 선행 릴레이는 기부 문화가 생소했던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운동선수의 고충을 잘 알고 있던 그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씨름 꿈나무 지원 후원 프로그램에 직접 발 벗고 나섰는데요. 재능은 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씨름 신동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함께 한 **‘블우 어린이 환자 돕는 1004 바이러스 캠페인’에 동참**해 귀감이 되었습니다.



출처=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JTBC ‘아는형님’

우유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한 2010년엔 우유 1만 개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날이면 병원에 방문해 환아들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슈퍼맨으로 변신, **초통령 이상의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2019년에는 JTBC ‘아는형님’ 멤버들과 함께 서울대 어린이병원 환아들을 찾아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강호동, 세월호 희생자 위해 단원고에 1억 기부...“아이 가진 아버지로서”



강호동,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위해 5천만원 기부[공식]



[공식]강호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 기부...‘코로나19’ 극복에 힘 보탤다

출처=동아일보,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강호동 기금’을 조성하는 등 어린이를 위해 꾸준히 기부해온 ‘빛호동’은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선행의 영역을 넓혀 갔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부터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죠.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기부에 동참했는데요.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사회적 단절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어 했죠.



최근 ‘빛호동’의 클래스를 정점을 찍은 특별한 행보가 있습니다. **故 송해의 뜻을 이어받은 것**인데요. **故 송해**가 촬영했던 숙박 플랫폼 ‘야놀자’ 캠페인 광고가 무산 위기에 처하자 애도의 마음을 담아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특히 출연료 전액을 ‘사단법인대한민국 방송코미디언협회’에 기부해 더욱 뜻 깊은데요. 생전 코미디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던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후배 코미디언 양성을 위한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국민 MC 강호동의 롱런 비결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은 대중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과 달리,
시청자들을 한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는 방송에 입문해 성공한 뒤부터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을 드러나지 않게 많이 도왔습니다.

나눔의 실천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만으로 모두가 따뜻해지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어느새 그들의 아는 형님, 아들,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강호동만의 매력은 이런 **따뜻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 보여줄 그의 무궁무진한 활약과 따뜻한 행보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호동이~오래오래 사랑해 주이소!”



SM C&C X ISOS가 **고객사 임직원의 안전한 해외출장을 도와드립니다!**"

글. 여행사업 Unit 법인영업팀 황도규

코로나 19 로 억눌렸던 해외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길에 오르는 출장자들로 바빠진 건 기업여행사 직원만이 아닙니다. 임직원의 출장을 관리하는 부서 역시 분주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해외출장자들이 개인 신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은 해외출장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출장 및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회사 'SAP Concur(SAP 컨커)'에 따르면 현재 출장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사항 중 하나가 '안전'으로 나타났습니다. SAP 컨커 관계자는 "출장관리자의 대부분이 '코로나 이후 출장자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답했다"며 "임직원 역시 출장 시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출장 프로그램을 회사가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디지털데일리> 웨비나 플랫폼 'DD 튜브'에서 열린 'SaaS 활용 및 고도화 전략 버추얼 컨퍼런스'

“

‘우리 회사 직원이 해외출장을 갔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해외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코로나 시대에 기업 출장 담당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기 마련일텐데요. SM C&C는 이런 상황에 보다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임직원 안전관리 전문기업 인터내셔널SOS(ISOS·International SOS)와 파트너십을 맺고 고객사에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SOS는 고객사 임직원의 안전한 해외출장 및 해외근무를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출장·주재원 출장(파견)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및 보안 이슈에 대한 최적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임직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의료 정보 등을 회사에 공유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해 본인에게 맞는 대응 방안을 받을 수 있고 기업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전문가에게 맡김으로 법적, 도덕적 안전배려의무를 실현할 수 있죠.

ISOS에 많이 들어오는 문의사항을 Q&A로 알아보기 전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출장자들이 실제로 문의한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문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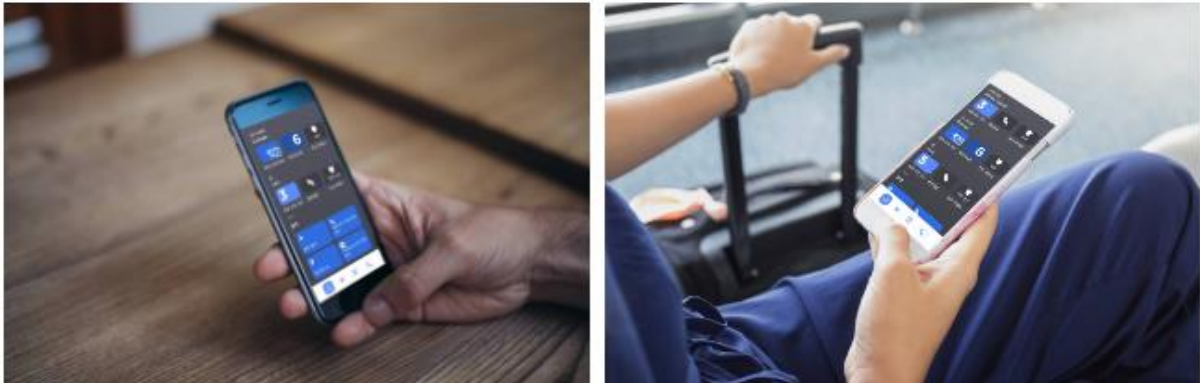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위한 병원은 어디 있나요?
파견국가 입국 시 필요한 예방접종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 또는 현지에서 수술을 받아도 될까요?
넘어져 머리와 팔을 다쳤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까요?
벌레에 물려 상처가 점점 부어오르고 붓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부터 복용하던 혈압약을 여기서도 구할 수 있을까요?
눈이 어두컴컴하고 불편한데 갈 수 있는 안과전문 병원은 어디 있나요?

<보안문의 사례>

태국으로 파견되기 전에 알아야 할 보안 상황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해외 숙소(호텔)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예정된 숙소 부근에 안전상의 이유로 방문을 삼가야 하는 장소가 있나요?
다음달에 인도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성 출장자로서 인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LA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동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호텔이 안전한가요?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다음주 수요일에 페투로 파견이 될 예정입니다. 페투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지진이 났다고 하네요. 지진 관련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제 동료가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방콕에서 2시간쯤 떨어진 교외 지역에서 미팅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갈 때 적절한 이동 수단은 무엇인가요?
첨부된 일정과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나이지리아 라고스 현장 3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동 간 주의사항과 방문 지역에서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ISOS에는 현지에서 발생한 문제뿐 아니라 출장 사전 준비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건강, 의료, 보안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ISOS가 지원합니다.

실제 문의 내용에 이어 해외출장자들이 궁금해하는 **해외출장 비상상황에 관련한 전반적인 문의사항을 Q&A**로 알아보겠습니다.



ISOS 앱을 사용하는 모습. 출처=ISOS

Q. 저희 회사 사업 특성상 전 세계 다양한 나라로 직원들을 출장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함께 주재원 출장을 가는 직원들도 있는데요. 나라마다 다른 백신 접종 증빙이나 입출국 제한사항을 일일이 파악해서 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여행사에서 주는 간략한 정보 외에는 직원들이 직접 알아보고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업의 안전배려의무 차원에서 맞춤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 코로나19 시대에 기업 출장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입출국 제한사항이 나라마다 다르기에 법인영업팀에서도 이를 가장 신경쓰고 있는데요.

ISOS는 무려 전세계 227개 국가의 의료, 보안, 여행, 도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출장국이 다양한 여행사업 Unit 고객사가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국가별 입출국 제한사항, 백신 접종 관련 내용뿐 아니라 보안 및 의료 수준, 질병과 예방, 긴급 연락처, 해당 국가의 문화나 관습 등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나 관습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출장지 또는 다른 나라를 경유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입출국 제한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요건도 다르고 제약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자주 변경되기에 인사팀 차원에서 매번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ISOS의 도움을 받으면 **회원사 전용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전화로** 해당 출장지에 맞는 백신 접종 증명서, 비자 요건, 격리 조건, 코로나19 검사 필요 여부, 보험증명서 필요 여부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인도 출장을 가는 여성 직원, 출장자가 운전을 직접해야 하는 미국, 범죄율이 높은 라틴아메리카로의 출장, 말라리아 발생 지역 등 출장지와 출장자 특성에 따라 사전 위험 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요건이 다 달라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A. SM C&C가 ISOS와 파트너십을 맺은 데는 **출장자가 사용하기 편한 원 스톱(One-stop) 교육환경을 구축한 이유**가 컸습니다.

ISOS는 출장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해외 보안 및 의료 안전관리 관련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출장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여성 해외 출장자 안전, 해외 도로 이용 안전, 말라리아, 고위험 국가 파견자 안전관리, 라틴아메리카 보안 위험, 경범죄, 테러사건 및 대응, 호텔안전, 납치에 대한 인식, 폭력적인 공격, 팬데믹, 스트레스 관리, 대기 오염, 자연재해와 건강 등 **약 40여개의 온라인 교육 과정이 하나의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출장 예정국 입력시 추천 강좌가 자동으로 배정되죠. 한국어 포함 13개국 언어 지원이 가능해 한국인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교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는 문의사항을 받는 지원센터. 출처=ISOS

Q. 출장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곳에 대한 주요 의료, 보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여행사업Unit 법인영업팀 고객사들의 주요 출장국은 매우 다양합니다. 때문에 여러 언어로 고객사 임직원의 출장을 지원해야 하죠. **ISOS는 24시간 365일 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지원센터를 포함해 전 세계 27개 지원센터에서 100개 언어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ISOS의 의료, 보안 전문가가 직접 수집하고 분석한 실시간 정보를 모바일 앱과 이메일로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에 따른 전문가의 조언도 함께 제공됩니다.

Q.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벼운 부상을 넘어 심각한 교통사고나 다른 사건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A. 다양한 위중증 의료 케이스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중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재원 A씨는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현지 병원 중환자실에 응급으로 입원했습니다. 뇌에 출혈이 있었으나 신경외과 의사가 일주일여 한 번 현지병원으로 출장을 오는 수준으로 다음 출장 일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뇌출혈이라는 소견만 주고 정확한 치료 방향을 줄 수 없다고 한 상태였죠. A씨는 서울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ISOS는 현지 병원에서는 수술과 치료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의료진 대동 하에 에어앰블런스로 한국으로 긴급 후송했고 수술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신경외과 의사의 다음 방문일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나 시간을 지체했다면 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응급 의료 케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각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의료환경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현지 병원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철저한 검증체계를 가진 전문가 또한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지 의료진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병원뿐 아니라 이후송 업체 등을 포함한 검증된 의료 네트워크에 대한 파트너십과 협상력도 갖춰야겠죠.

위 사례처럼 현지 의료기관 및 의사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치료과정에서 위험을 평가하여 인접국 또는 한국으로의 이송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 이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송방안을 수립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겸비돼야 합니다.**



에어앰블런스로 이송되는 모습. 출처=ISOS

Q. 테러나 시위 등 긴급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임직원을 파악하는 데에만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전 세계에 퍼져있는 우리 직원들, 어느 나라에 몇 명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한번에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A. 전세계 의료 및 보안 위험정보와 함께 현지 파견인원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도입하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실시간 파견국 의료, 보안 위험정보와 해외 출장자 인원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시에는 출장지 정보를 자동 발송**해줍니다. 폭탄테러, 총기사고 등 현지 비상 상황 발생 시 영향권 내에 위치한 출장자의 실시간 소재를 파악하고 그들의 신변안전여부를 확인하며 관련 내용을 자동 보고합니다.



글로벌 임직원 안전관리 서비스에 관한 내용 잘 보셨나요?

실제 해외출장자들의 문의사항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 피부에 더 와 닿으셨을 것 같습니다.

SM C&C 여행사업 Unit은 ISO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안전 관리에 대한 문의는 **여행사업 Unit**으로 부탁드립니다.

SM C&C LETTER 5월호부터 12월호까지 [SM PICK] '헤이폴* 선정 이달의 앱'이 소개됩니다.
SM C&C 광고사업부문 킬리언(Tillion)팀이 매달 MZ세대가 주목하는 앱을 선정해
해당 앱의 특징, 주요 타깃층, 헤이폴이 분석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소개해드립니다.

*헤이폴(heypoll) : SM C&C가 운영하는 늘면서 하는 초간단 앱테크 플랫폼. 설문조사, 투표, 퀴즈 참여 등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받는다.

heypoll 헤이폴 선정 이달의 앱 4탄

중고거래 앱? No! 이제는 국내
최대 지역 생활 서비스 앱!



당신 근처의
당근마켓



I 당근마켓, 그게 무슨 앱이야?

II 헤이폴이 당근마켓을 Pick한 이유

III 당근마켓이 MZ세대에게 주목받은 세 가지 이유

- ① UI/UX ② 캐릭터·굿즈 ③ 지역 기반 커뮤니티

IV 헤이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I
당근마켓,
그게 무슨 앱이야?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및 생활정보 앱입니다. 카카오의 사내 중고거래 게시판 '판교장터'에서 시작했습니다. 2015년 (주)엔사십이가 직장인 기반의 '판교장터'라는 이름으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로이스 서비스를 오픈한 것이 당근마켓의 전신입니다. 2016년 (주)엔사십이에서 (주)당근마켓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 인지도가 높아지며 가입자 수가 늘었죠. 초기에는 중고거래 서비스만을 제공했으나 현재는 지역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지향하며 동네 서비스 홍보, 동네 추천 장소 및 소식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 당신 근처의 당근마켓

앱 런칭 연도	2015년
앱 카테고리	소셜 네트워킹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	1,800만명 ('22년 5월 기준 / 출처 : 당근마켓 홈페이지)



헤이폴이 당근마켓을 Pick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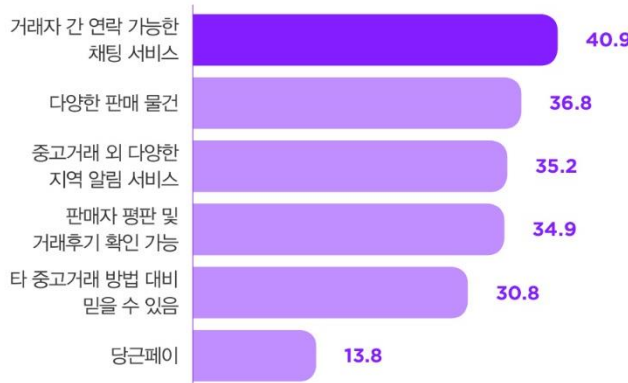
MZ세대(밀레니얼+Z·출생연도 1980년~2004년생)의 소비는 '플렉스하는 자린고비'라는 말로 설명됩니다.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품목이 있지만 한편으로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니즈가 부합하여 MZ세대가 주도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거래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MZ세대에게 중고거래 대표 플랫폼으로 알려진 '당근마켓'이 궁극해졌습니다.

헤이폴을 활용한 투표에서 중고거래 경험자에게 '중고거래'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브랜드를 질문했을 때 당근마켓을 꼽은 대답은 무려 74.7%로 나타났습니다. 당근마켓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당근마켓의 장점이 무엇인지 질문했는데요, 응답자의 40.9%가 당근마켓에서 처음 도입한 '거래자 간 연락 가능한 채팅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다양한 판매 물건(36.8%)' '중고거래 외 다양한 지역 알림 서비스(35.2%)'가 뒤를 이었습니다.

당근마켓 장점

2039남녀 당근마켓 이용 경험자 318명 / 복수응답 / 단위 %





당근마켓이 MZ세대에게 주목받은 세 가지 이유

- 당근마켓이 MZ세대에게 주목받는 앱이 된 세 가지 이유는
- ① 핵심 기능에 집중한 UI와 UX
 - ② MZ세대 취향을 저격한 귀여운 캐릭터와 굿즈
 - ③ 지역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① 핵심 기능에 집중한 UI와 UX (User Interface/User Experience)

당근마켓 핵심 서비스에 집중한 직관적인 UI,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위한 UX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핵심 기능에 집중한 UI와 UX는 복잡하지 않은 거래 과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채팅으로 거래하기' 기능. 출처 : 당근마켓

당근마켓에는 '채팅으로 거래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상품 화면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 판매자와 채팅을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중고거래 서비스 1위였던 '중고나라'는 네이버 카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야 했죠. 하지만 당근마켓에서는 다른 경로를 통한 필요없이 앱 내에서 바로 판매자와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MZ세대를 아울러 모든 연령대에서 편리한 서비스로 인식됐습니다.



카테고리 설정 메뉴. 출처 : 당근마켓

사용자 본인의 기호나 관심 품목에 따라 서비스 맞춤형이 가능한 UX를 도입해 앱 첫 화면에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만 노출될 수 있게끔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는 사용자와 서비스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해 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③ 지역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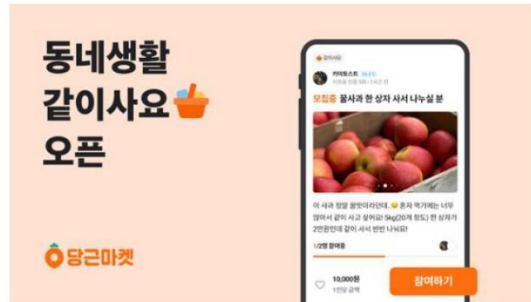
계속해서 당근마켓을 찾게 되는 지역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동네 사람끼리만 중고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당근마켓은 이제 '로컬 커뮤니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단순 중고거래를 넘어 주민들 간의 정보교류, 지역 내 서비스 홍보, 더 나아가 구인구직과 부동산 등 방대한 지역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네이버 카페에서 담당하던 지역 카페를 플랫폼화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헤이플이 실시한 서베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고거래 외 다양한 내 지역 알람'은 MZ세대에게 당근마켓의 주요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서비스 중 하나인 동네생활. 출처: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지난 7월 이웃들을 모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같이사요' 서비스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출시했습니다. 대량으로 사면 싼 물건을 이웃끼리 모여 함께 구입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여러 집이 같이 시켜 배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룹채팅 기능을 통해 참여 연령과 성별, 인원 수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 고민을 나누고 싶은 30대 초보 육아맘, 집 앞 공원에서 농구를 하고 싶은 20대 남성 직장인, 동년배 이웃들과 등산 모임을 하고 싶은 4050처럼 구체적으로 모집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맘카페, 지역 카페 등의 서비스를 당근마켓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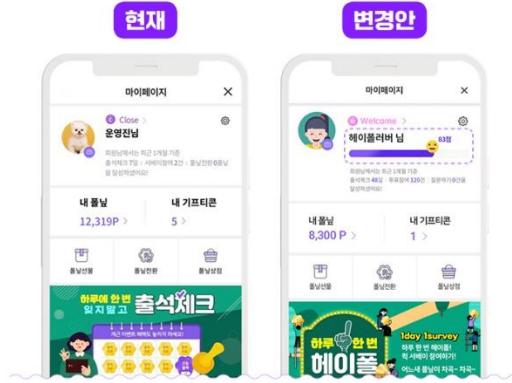


당근마켓 서비스 중 하나인 '같이사요'. 출처: 당근마켓

IV

헤이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① 헤이플 활동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헤이플 '마이페이지' 화면 출처: 헤이플

당근마켓은 '매너온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별 활동 적극성과 다른 사용자들에게서 받은 평가를 토대로 온도가 올라가거나 떨어집니다. 매너 온도는 판매자의 신뢰도로 직결되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들은 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물건을 판매합니다. 이 덕분에 상품 구매자의 만족도는 올라가고 당근마켓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집니다. 이런 제도를 '헤이플'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이플에서 진행되는 투표 및 서비스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거나 내가 직접 작성한 댓글이 다른 사용자들로 하여금 높은 공감을 받았을 경우 성실 응답 배지 혹은 아이콘으로 표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 만족과 고객 충성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유튜버/인플루언서와 협업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한 장면. 출처: YouTube

지난해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예능인 유재석이 당근마켓에서 도움을 손길을 요청하는 이웃을 만나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에피소드가 방송됐습니다. 여러 브랜드와 협업하여 방송에 나오는 건 많았지만 당근마켓이 특히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은 이유는 당근마켓이 추구하는 동네 생활의 모습과 연결의 가치가 제대로 소구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HEYPOLE도 유튜버,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해 단순한 앱테크가 아닌 다양하고 흥미로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점, 나와 동일한 성별 또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을 잘 녹여내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5월 누적 가입자 수 3,000만명을 넘긴 당근마켓. 국내에서는 중고거래를 넘어 지역 기반 커뮤니티로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해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4개국의 약 440여 지역에서 '캐롯(Karrot)'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근마켓이 국내외에서 얼마나 더 영역을 확장하게 될지 기대가 모입니다.

SM C&C 광고사업부문 서베이 플랫폼 '헤이폴(heypoll)'에서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는 앱 중 카테고리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앱을 선정해 리뷰한 내용입니다. 헤이폴 유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베이에 기반해 작성했습니다.

공급해결 리워드앱
헤이폴





일(On)과 일상(Off) 사이, '진짜 나'를 보여주겠SM

'진짜 대단한 직장인'의 특징을 아시나요? 퇴근하자마자 눕지 않고 바로 씻는 사람, 매일 브이로그 찍고 편집하는 사람, 계단으로 퇴근하는 사람 등. 이 대단한 직장인들의 공통점은 오늘 하루 사용할 에너지를 거의 다 소진한 퇴근 후 무언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대단한 직장인으로 꼽힌다는 건 오프(Off) 상태가 된 본인에게 또 한번 의지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방증이겠죠.

여러분은 퇴근 후 어떤 저녁을 보내시나요? 여기, 이들보다 더 대단한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워라밸을 잘 유지하며 퇴근 후 알뜰하게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인데요. 업무에도 한 스푼 도움이 되는 찐능력자 구성원들의 취미생활을 만나봅니다.

AI로 그림 그리는 직장인부터 도예를 하는 직장인까지 이들의 온앤'오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리 PR팀 김서연, 이지혜



관심분야 그림

취미 AI로 그림 그리기

제 취미는 AI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아들이 주인공인 동화책을 AI로 그려 제작했고
메타버스 전시회를 여는 것이 목표입니다.

Q. AI로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선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지도 궁금해요.

A. 우연히 시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됐어요. '나도 AI로 그림을 그려볼까'하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프로그램에 영어로 명령어를 주면 그 명령어를 습득한 AI가 4가지 옵션을 줘요. 이 중 내가 원하는 그림에 가장 가까운 하나를 고르면 또 4가지 옵션을 주고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업스케일링(Upscaling)과 배리에이션(Variation)이 진행되는 거예요. 명령어 대신 영감 받을 수 있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어요.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시용 용어를 먼저 배워야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 배우는 데 더 시간이 더 들었어요. (웃음)



프로그램에 명령어를 준 화면이에요. 아들 동화책에 들어갈 그림이라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그려달라고 했죠. 제가 좋아하는 네 명의 작가 신카이 마코토, 토마스 킨케이드, 실비안 새러일, 안드레아스 호차의 화풍을 섞어달라고 지시했어요. 화질은 4K, 비율은 16:9로 주문했고 '(relaxed)'로 지시해 천천히 시간을 갖고 작업해달라고 했습니다. 출처 : 윤석관님



명령어가 실행된 결과값이에요. 이렇게 4장의 사진을 주고 업스케일링(Upscaling) 또는 배리에이션(Variation)을 선택하도록 해요. 저는 두 번째 사진을 업스케일링 하기로 해서 'U2'를 눌렀어요. 출처: 윤석관님

Q. AI로 그림을 그리며 얻은 꿀팁이 있다면요?

A.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AI는 백지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어떤 방향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학습시켜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의 그림을 AI에게 이야기로 풀어줘야 해요. 마치 소설처럼 묘사하는 거죠. 만약 빛이 들어온다면 창문을 통해서 어느 각도로 어느 정도로 들어오는지, 그림자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까지 세세하게 다 얘기해야 해요. 명령어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AI에게 내리는 지시가 분명해야 내가 원하는 그림과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오래 명령을 내리며 그렸던 AI 그림. 출처: 윤석관님

Q. AI로 그린 그림을 NFT에 내놓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A. 궁극적으로 제 이름을 앞세운 콘텐츠가 나오는 게 목표라 현재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아들이 주인공인 동화책을 AI로 그려 제작하려고 시도 중이고 3D 프린터기로 뽑아내 전시회를 여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시는 메타버스에서 할 예정이에요. AI에게 명령어 없이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로봇들만 있는 도시를 그려주더라고요. 상상도 못 했던 그림이어서 앞으로 종종 AI에게 질문만 던져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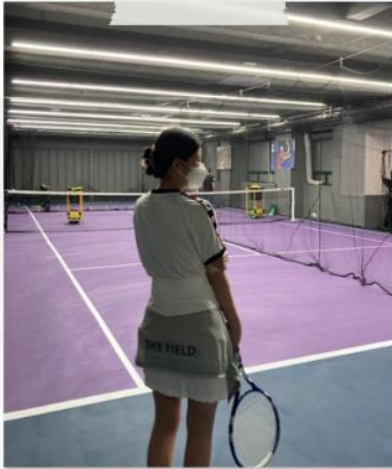
아들을 대상으로 쓰는 동화책에 들어갈 삽화. 출처 : 윤석관님

Q. 이런 취미 활동을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적용해 본 적이 있나요?

A. 지난해 12월 드론 솔루션 전문업체 파블로항공과 SM C&C가 MOU를 맺었잖아요. 드론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를 활용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MOU의 목적이었는데 이 MOU 이후 드론이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에서 상용화 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궁금했어요. 파블로항공과 SM C&C가 그리는 미래 드론 세상을 1920년대 레트로 스타일과 언리얼엔진(Unreal Engine·3D 제작 플랫폼) 그래픽 스타일로 그려보고 싶었어요. 드론이 도심 상공을 날면서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것을 명령어로 넣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미래 드론 세상을 1920년대 레트로 스타일과 언리얼엔진(Unreal Engine·3D 제작 플랫폼) 그래픽 스타일로 그려본 그림.
출처 : 윤석관님



관심분야 운동

취미 폴댄스&테니스

제 취미는 폴댄스와 테니스입니다.
주 3회 이상 꾸준히 운동하고 있어요.

Q. 다양한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폴댄스와 테니스는 언제부터 하셨고 이렇게 다양하게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폴댄스는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되어서, 테니스는 언니와 함께 유산소 운동을 찾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언니와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고 싶어서 테니스를 선택했죠. 제가 하는 폴댄스와 언니가 하는 PT 모두 근력 중심 운동에 사람과의 교류가 없는 혼자하는 운동이라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면 좋겠더라고요. 테니스는 별다른 유산소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칼로리 소모량이 엄청나요. 무엇보다도 폴댄스복과 테니스복이 예뻐서 많은 운동 중 고르게 됐어요. (웃음) 예쁜 옷을 입고 하면 운동하는 맛이 더 난달까요?



(좌) 폴댄스 자세 중 킥벨 포즈를 하는 모습 (우) 백핸드 자세로 테니스 치는 모습. 출처: 차주미 님

Q.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꿀팁이 있나요? 폴댄스와 테니스 입문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A. 테니스의 경우 레슨비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 많이 비싼 편에 속해요. 대부분의 실내 테니스장에서 1일 체험권을 끊을 수 있으니 먼저 체험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장비 대여까지 레슨비에 포함되는 곳이면 좋아요. 폴댄스의 경우 손의 땀을 흡수해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그립제와 건조한 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알로에 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려요. 몸이 너무 건조하면 폴에 몸이 붙지 않거나 마찰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서 아플 수 있어요.



폴댄스 의상. 출처: 차주미님



학원에 비치된 테니스공과 대여 라켓. 출처: 차주미님

Q. 앞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A. 테니스의 경우 야외 코트에 나가는 게 목표예요. 코치 선생님 말씀으로는 랠리를 5번 이상 이어 나갈 수 있으면 야외 코트에 나갈 수 있대요. 배운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더 노력해야겠지만 얼른 실력을 키워서 예쁜 운동복 입고 야외 코트에서 경기하는 게 목표입니다. 폴댄스 목표는 긴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수업 받을 때마다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 당일 배운 동작만 찍다 보니 아 직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릴 정도로 짧은 수준이에요. 다양한 동작을 많이 배워서 긴 영상도 남기고 싶어요.

Q. 운동하면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A.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다보니 체력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래 앉아서 일하다 보면 쉽게 지치기 마련인데 운동을 시작하고 난 뒤에는 덜 지쳐요. 또 평소에 생각이 많은 편이라 업무 고민을 한 번 떠올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운동을 하는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떠올리지 않게 되어서 좋더라고요. 운동하고 나면 '그래, 이렇게까지 고민할 정도는 아니지'하고 정리되는 느낌이랄까요. 불금과 일요일 저녁 휴식을 포기하며 테니스에 제 생활을 맞췄는데 후회는 없어요.



폴댄스 첫 수업 때 모습. 출처: 차주미님



관심분야 예술

취미 도예

제 취미는 도예입니다.

1년 반 정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만든 컵 선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Q. 도예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도예를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도 궁금해요.

A. 도예 원데이 클래스를 계기로 1년 반 정도 배웠어요. 말하거나 듣지 않고 조용히 촉각을 활용해 결과물을 낸다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무실에서는 잠시 재웠던 감각을, 평소에 쓰지 않던 감각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물레가 돌아갈 때 잠깐이라도 딴 생각을 하면 금방 쓰러지고 파여요. 제 업무가 기획이다 보니 계속 생각을 확장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요, 도예를 할 때만큼은 생각을 확장시키기보다 나를 잠시 가뒀두고 계속 축소시킬 수 있어요. 그게 도예의 가장 좋은 점 같아요.



컵을 깎다가 찢어진 슬픈 실패작. 잡념이 많아서 집중을 못하면 종종 이렇게 된다. 출처 : 이수원 님

Q. 흔히 말해 '도예를 주변 사람들에게 영업'한다면 어떻게 끌어들이고 싶으신가요?

A.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만든 걸 선물하는 재미로 도예를 권하고 싶어요.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평소 고마웠던 분들에게 드리거나 팀원분들에게도 종종 드렸어요. 결혼, 이사, 입사 등 인생에 큰 이벤트가 있는 분들에게 제 마음을 담아 선물하는 게 뿌듯하더라고요. 트위터나 당근마켓에 택배비만 받고 나눠주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보통 같은 컵이나 그릇을 3개 정도 만들어요. 내가 만든 컵에 맛있는 커피를 담아 마시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이에요.

Q. 도예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A. 흙을 빚고 자연 건조를 며칠 정도 해요. 저는 주로 컵을 만드는데요. 컵의 경우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바닥을 깎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굽을 깎고 손잡이를 붙인 다음 초벌 후 유약을 바르고 한 번 더 구워요. 이 과정에서 물레를 차고 흙을 빚기 전에 중심이 잘 잡히도록 형태를 만들어 주는 작업이 있어요. 힘 조절을 잘해야 해요. 조절이 조금만 어긋나도 흔들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만들면 컵 한쪽만 뚱뚱하게 만들어지거나 찌그러지거나 기울어요.



굽을 깎는 모습. 출처 : 이수원님



(좌) 1차 초벌한 모습 (우) 초벌 후 유약을 바르고 한 번 더 구운 완성작. 출처 : 이수원님

Q. 도예 입문자들에게 주실 팁이 있을까요?

A. 도예를 할 때 팁이라면 본인이 생각하는 크기보다 10% 크게 만드는 것이예요. 초벌하면 찰흙 안에 수분이 날아가면서 10% 정도 크기가 줄거든요. 커피 잔을 만들었는데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 에스프레소 잔이 될 수 있어요. 평소에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에서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돼요. 흔히 말하는 인스타그램 감성의 예쁜 카페들은 컵부터 다르잖아요. 찍어서 저장해두고 나중에 직접 만들 때 레퍼런스로 활용해요.



접시를 물레로 빚은 직후 찍은 사진. 출처 : 이수원님



관심분야 사진

취미 드론 카메라·필름카메라·DSLR 촬영

제 취미는 드론 카메라, 필름카메라, DSLR 촬영입니다.
 사진을 인화해 책갈피를 만들기도 하고
 스톡시장에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Q.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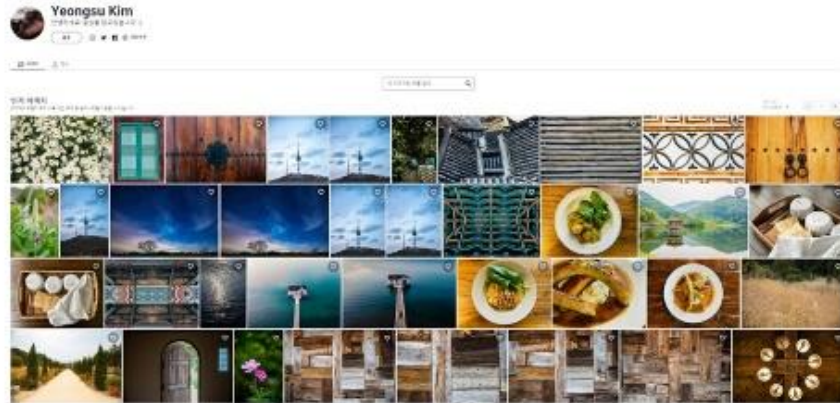
A.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필름카메라를 물려주셨어요. 대학생이 되어 교양과목으로 사진학을 들으며 DSLR을 접했구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사진관 사장님께 많이 여쭙봤어요. “저는 이런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나요?” 하고요. (웃음) 특히 DSLR은 용어가 어렵더라고요. 사진을 잘 찍고 싶을수록 ISO, 노출값, 화각, 셔터속도 등 이런 용어들을 책을 통해 공부해야 했어요. ‘AUTO’로 두고 찍어도 되지만 찍고 싶은 사진의 느낌이 명확해지면서 작동법을 더욱 제대로 배우고 싶었죠.



(좌) 코타키나발루 선셋비치에서 찍은 사진 (우) 순천만정원. 출처 : 김영수님

Q. 이 취미를 어떻게 쓰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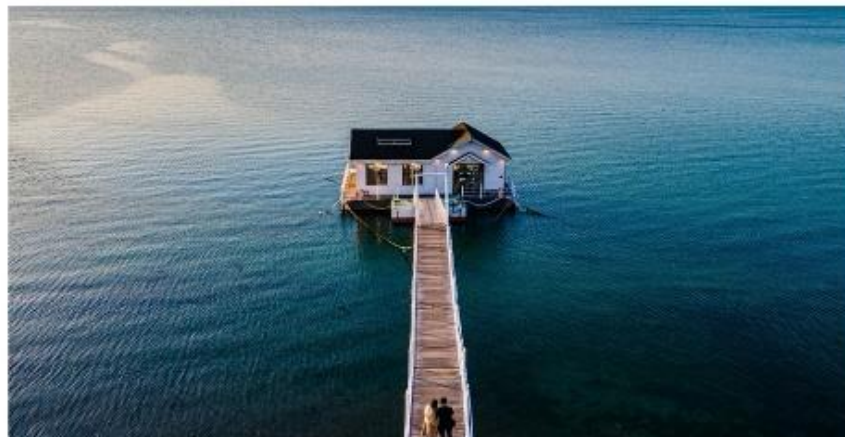
A. 미디어플래닝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진 보정 프로그램,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으니 수정이 급할 땐 제 선에서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웃음) 셔터스톡 같은 상업용 이미지 거래 사이트에 제가 찍은 사진을 올려서 팔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부계정에 따로 사진들을 업로드 하며 아카이빙 중이고요. 사진을 현상해서 책갈피로 쓰거나 선물하고 지인들의 결혼식을 촬영해 주기도 해요. 노후에는 갤러리 카페를 하고 싶어요. 카페에 제가 찍은 사진이나 미대생들의 졸업작품을 전시해 두려고요.



셔터스톡 계정에 올린 사진들. 출처: 김영수님

Q. 주로 어떤 사진을 찍으세요?

A. 요즘은 자연 위주로 찍고 있어요. 예전에는 인물 찍는 것을 좋아했어요. 풍경 사진은 맛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풍경을 찍는 게 좋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찍히는 것에 조심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저는 혼자 찍는 편이에요. 인터넷에서 정말 예쁜 사진을 보면 "나도 저렇게 찍어봐야지!" 하고 장비 챙겨서 가요. 보통 그런 사진들은 일출처럼 새벽잠을 포기해야 하거나 오랜 시간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지켜봐야 하는 사진이에요.



Q. 입문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팁이 있나요?

- A.** 한정된 예산에서 DSLR을 사는 입문자라면 바디는 보급형으로 사는 걸 추천 드려요. 렌즈에 좀 더 돈을 투자하세요. 찍고 싶은 사진이 많아질수록 기본 렌즈인 번들렌즈의 한계가 느껴지거든요. 카메라 구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렌트 업체를 통해 하루 정도 대여해서 출사를 나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씩 사다 보면 점점 장비 욕심이 커져요. (웃음) 플래시, 세로 사진을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세로그립, 가벼운 삼각대에서 시작했는데 항공 사진이 찍고 싶어 드론 자격증을 땀고 드론까지 샀어요.



관심분야 음악

취미 피아노·기타·바이올린 연주하기
연주 영상 편집하기

제 취미는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연주한 영상을 편집해 YouTube 개인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Q. 악기를 많이 다루시네요. 언제부터 연주를 하셨고 이렇게 많은 악기를 다루게 된 계기는 무엇 인가요?

A. 피아노는 20년 넘게 쳤고 기타는 12년, 바이올린은 3개월 정도 연주했어요. 피아노를 칠 수 있으니 기타와 바이올린 배우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던 것 같아요. 어떤 곡을 피아노로 칠 수 있으면 기타로도 바로 연주할 수 있거든요. 손만 피아노 건반에서 기타줄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 대금을 5년 정도 했거든요. 관악기도 할 줄 알고 드럼도 비트 맞출 정도는 칠 수 있으니 타악기도 할 줄 아는데 제가 유일하게 못 다루는 게 현악기였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시작한 거예요.



(좌) 자취방에 있는 전자피아노와 기타. 촬영할 때는 휴대폰 거치대를 이용한다.
(우) 기타 치며 노래하는 영상에 피아노 반주를 얹어 편집한 영상. 출처 : 김서연님

Q. 연주 영상도 찍어서 편집하신다고 하셨어요. 영상 편집은 어떻게 하시게 된건가요?

A. 가수 헨리가 루프스테이션을 이용해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자취방에 살고 있기도 하고 이미 악기와 스피커, 이어폰, 헤드셋에 많은 돈을 쓴 터라 루프스테이션을 살 수 없었어요. (웃음) 그래서 기타치며 노래하는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다른 휴대폰으로 그 영상을 헤드셋으로 들으며 피아노를 쳤어요. 나중에 영상 편집 앱으로 두 영상의 싱크를 맞췄어요. 이것마저 맛있게 나중엔 화음도 따로 녹음해 얹고요. 얼른 루프스테이션 사서 본격적으로 고음질 녹음을 해보고 싶어요.



(좌)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 (우) 기타를 조율하고 있는 모습. 출처 : 김서연님

Q. 이 취미를 하기 위해서 '나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A. 8년 동안 좋아한 첫사랑이 기타를 잘 쳤어요. 그 친구한테 말 한번 걸어보려고 무작정 기타 사서 독학했습니다. (웃음) 그 친구가 '기타의 신'으로 불리는 에릭 클랩튼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가수 노래만 들으며 계속 연습했구요. '이 곡만큼은 꼭 연주해야겠다' 하는 음악이 하나 있으니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3개월 고비를 넘길 수 있더라고요. 저에게 이 곡은 에릭 클랩튼의 Wonderful Tonight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만번은 넘게 듣고 쳤을 거예요. 하루에 세네 시간씩 연습하니까 물만 달아도 아릴 정도로 손끝이 붓고 빨개지고 굳은살도 여러 번 벗겨졌어요.



피아노 치는 모습. 출처: 김서연님

Q.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나 영상 편집하는 취미가 현재 하시는 업무에 도움이 되나요?

A. 사실 현재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웃음) 오랜 시간을 달려와서 제게 도착한 도움 혹은 장점쯤 될 것 같아요. PR팀에서 저는 주로 글을 쓰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글을 쓰도록 받쳐주는 감성과 감수성이 음악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영상 편집의 경우 제 주된 업무가 아닌긴 한데요, 편집된 연주 영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편집 스킬이나 기획력 같은 게 몸소 체득되긴 하더라고요.



‘시간은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라는 명언을 제대로 실천 중인 구성원들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이 여름이 가기 전, 회사와 집을 반복하는 단조로운 일상을 새로운 취미로 채워보세요.



2022년 2분기 우수사원을 소개합니다

신지원(CX3팀) 김무진(독립문) 김대근(CI3팀) 구민정(CP2팀) 오관섭(MC매니지먼트1팀)
장지규(연기자매니지먼트1팀) 이나연(콘텐츠기획제작4팀) 조은지(콘텐츠제작지원팀)
김한규(프로젝트매니지먼트팀) 이은정(경영기획팀) 박예민(항공운영2팀)

[+ 자세히 보기](#)

2022년 2분기

우수사원을 소개합니다!

신지원

광고사업Unit | CX3팀

빅클라이언트 3곳 수주에
주도적인 역할로 기여

“
올해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는 우리
CX3팀 모두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하반기 조금 더
힘내보아요 :)
”

김대근

광고사업Unit | CI3팀

빅클라이언트의 22년 상반기
빌링 및 매출 확대 견인

“
CI센터, CS센터, CM센터 동료 여러분
쉽지 않은 광고주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니다.
이렇게나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김무진

광고사업Unit | 독립문

경쟁 PT 수주 공헌 및
클라이언트 관리 역량 발휘

“
팀원들 모두 함께 고생했는데
대표로 제가 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고로 포상금은 팀원들에게
뿌리겠습니다.
”

구민정

광고사업Unit | CP2팀

경쟁 PT 수주 및 탁월한 실무
운영으로 클라이언트 만족도 제고

“
5개월의 대장정, 우리 정말 잘 싸웠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벌써 그림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

오관섭

매니지먼트Unit |
MC매니지먼트팀

아티스트 신동엽 매니지먼트 담당으로
성실한 업무태도, 빠른 판단력 등으로
구성원들의 모범이 됨

“
최고인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일해왔습니다. 최종욱 센터장님,
이지원 그룹장님을 비롯한 동료
구성원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나연

STUDIO Unit | 콘텐츠기획제작4팀

글로벌 프로젝트 NCT Universe,
SM C&C 오리지널 콘텐츠를 담당하며
뛰어난 제작 역량 발휘

“
이끌어주시고 격려 해주시는
선배님들, 항상 도움주시는
유관부서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

장지규

매니지먼트Unit |
연기자매니지먼트팀

다수의 아티스트를 담당하며
스케줄 관리, 케어 등 원활하게 수행

“
부족한 제가 이렇게 멋진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언제나 뒤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우성진 센터장님, 이준용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연기자 매니지먼트 화이팅!
”

조은지

STUDIO Unit | 콘텐츠제작지원팀

STUDIO Unit 내 최장기간 근속
팀원으로 근면성실한 태도와
책임감 높은 업무 수행

“
늘 함께 고생하시는 그룹장님,
팀장님과 번거로운 요청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STUDIO Unit 모든
구성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김한규

BU/직할 | 프로젝트매니지먼트팀

광고사업Unit 협력사 및 하도급
현장 안전 및 보건 관리 기준 도입

“
이 자리를 빌어 센터장님을 비롯한
동료 구성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백항서두구박'~
사랑합니다♥

”

박예민

여행사업Unit | 항공운영2팀

'22년 2분기 항공발권 회복에 기여하며
코로나이전 대비 5월 발권량 초과 달성

“
항공운영팀 모두가 2분기에도 너무
고생 많았고 이 영광을 팀원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

이은정

BU/직할 | 경영기획팀

예산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비용의
효율적 배분 관리 및 손익 관리 강화

“
든든한 힘을 주시는 팀장님과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는 팀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호 Best 3 다시 보기



ADVERTISING

SK텔레콤
T우주와 함께라면
세상의 모든 취미 구독 가능!

[+ 자세히 보기](#)



TRAVEL

前 호텔리어 現 호텔팀
구성원이 알려주는
휴가철 호캉스 꿀팁!

[+ 자세히 보기](#)



SM INSIDE

전지적 현지인 시점!
SM C&C 구성원들이 전하는
내 고향 썬휴가 포인트

[+ 자세히 보기](#)



뉴스레터를 새롭게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고
수신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12층-14층 | 발행인 : 김동준, 남궁철
© SM Culture&Contents, All rights reserved.

 PDF 다운받기

